

조향의 문학독본과 1950년대 대학 문학교육*

이 순 목**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문학독본의 체재와 성격 변화 |
| 2. 문학독본의 발행 동기와 교양으로
서의 대학 문학교육 | 4. 마무리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향의 문학독본 3종, 즉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서울: 행문사, 1948.12), 『現代國文學粹』(부산: 자유장, 1952.11), 『大學國語 現代文學』(부산: 자유장, 1958.4)의 체재와 성격을 비교·고찰하였다. 우선, 전체 26과로 편제된 1948년판은 시, 소설, 희곡, 수필, 비평, 문학론, 역사, 미술, 미학 등 다양한 갈래의 글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발간된 문학독본이나 중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중등국어교본』이나 『중등국어』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이었다. 또한 이 교재는 광복기 국어교과서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4S1A5B5A07042103).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나 문학독본에 수록된 기존의 작가정전을 주로 활용했다. 당시 남한 문학사회의 문단재편 결과와는 다르게 이태준, 조운, 정지용, 임화, 함세덕, 오장환, 백석, 박치우 등 월북·재북문학인들의 작품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근대문학사에 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친일과 저항,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차원에 상관없이 근대시의 전통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1952년판은 단정 수립 이후 문단재편의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제재를 죽 나열하던 초판의 과 중심 편제에서 벗어나 시와 소설, Essay(비평과 논문)로 나누어 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1952년판에서는 후반기 동인의 시를 현대시사의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편집주체가 지향하는 초현실주의의 이념과 문학적 좌표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교양교육 교재를 통해 후반기 동인의 문단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상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958년 4월에 발간된 『대학국어 현대문학』은 1952년판의 확장판으로, 시, 소설, Essay로 1952년판의 구성 방식과 체재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었다. 편자 자신의 「현대시론」과 「현대소설론」을 작품의 서두에 배치하여 감상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편제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시를 대폭 수록한 까닭은 “형식적인 망라주의”보다는 “중점주의”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1948년판은 1952년판에 비해 문학적 자의식을 교재에 적극적으로 투영하지 못했으며, 1952년판과 1958년판으로 갈수록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의 문학적 태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조향의 문학독본은 초현실주의의 문학을 이론화하고 교육제도에 확산시키고자 한 기획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당대 균형적인 문학 교양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주력했던 다른 대학국어 교재와는 확연한 차이를 지닌다. 이는 조향이 1949년 여름 결성된 후반기 동인 활동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현대문학연구회를 거치면서 초현실주의 시와 시론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거듭 강화해 나간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조향, 문학독본,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現代國文學粹』,
『大學國語 現代文學』, 문학교육

1. 들머리

두루 알다시피 조향은 후반기동인회를 결성하여 한국전쟁기 피난지 부산에서 초현실주의 문학 운동을 실천한 시인이자 비평가이다. 그는 1917년 12월 9일 경남 사천군 곤양면 금성리의 외가에서 태어났으며, 아명(兒名)은 희제(嬉濟), 본디이름은 섭제(燮濟)였다. 1924년 산청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버지의 직장 이동에 따라 곤양보통학교를 거쳐 1930년 진주제1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진주고등보통학교(현 진주고등학교) 재학 당시 조선어 선생이던 박중구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뜻을 두고 교우지에 시와 산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38년 대구사범학교를 수료하고 교사로 일하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교직을 관두었다. 1941년 일본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합격했지만 사정에 따라 전문부 상경과로 옮겼으며, 민족주의 사상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추방당했다고 한다. 1942년 징용을 피해 마산 성호초등학교 교사로 취직하였으며, 광복기에는 마산공립상업학교(현 용마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이때 동인지 『浪漫派』를 주재하며 탁소성, 김수돈, 김춘수 등과 교류하였다. 1946년 6월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 경남지부가 결성될 당시 맹원으로 활동했으며, 1947년경 부산으로 자리를 옮겨 우파 반공주의자로서 행보를 거듭하였다. 이 시기 동아대학의 전신인 남조선법문학원 문학예과에서 문학을 가르쳤는데, 그의 활동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남조선법문학원 학생들이 주도한 동인지 『소예군상』이다.¹⁾

1949년 김경린, 이봉래, 박인환 등과 후반기 동인을 결성하여 현대시의 새로운 모더니티를 탐색하였으며, 전중기에도 다방을 빌려 ‘이상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²⁾ 후반기 동인이 해체된 이후 부산 지역 문인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연구회를 조직하여 기관지 『현대문학』(1954.11)과 동인지 『가이거(Geiger)』(1956)를 간행하는 등 초현실주의 문학운동을 심화시켜 나갔다. 1960년대 중반까지 부산에 머물며 현대문학연구회, 일요문학회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1970년대에는 ‘초현실주의연구회’와 ‘전환동인’ 활동을 통해 데뻬이즈망이나 몽타주 등 초현실주의의 기법에 문명 비판의 성격을 가미한 네오 초현실주의의 반미학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시력(詩歷)이 40여 년을 훌쩍 넘는 데도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도 남기지 않았다. 현재 그가 발간한 동인지만 여럿 남아 있을 뿐이다. 전통미학을 해체하는 실험을 감행하던 문학적 삶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닮았음인지 1984년 8월 9일 피서지 동해안에서 심장 장애로 갑자기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껏 조향에 대한 연구는 그가 ‘초현실주의자’라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체로 초현실주의 기법이나 창작방법, 이미지, 시어, 시의 구조, 서구 문예사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³⁾ 최근에는 그의 문단

- 1) 동아대학 강사 시절 조향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동인지에 대해서는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소명출판, 2012.6, 400~465쪽을 참고할 것.
- 2) 피란지 부산에서 후반기 동인의 활동과 면면은 다음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김규동, 『대한민국 시인들』, 『나는 시인이다』, 바이북스, 2011, 216~231쪽.
- 3)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박현수, 『조향 시론: 아방가르드와 원시주의의 활력』, 『우리말글』 36집, 우리말글학회, 2006, 233~262쪽; 송기환, 『후반기 동인과 전위의 의미』, 『한국시학연구』 제20호, 한국시학회, 2007, 63~85쪽; 김창환, 『“후반기” 동인의 시론과 영화의 상관성에 대하여 - 김규동, 조향의 시론을 중심으로』, 『사이間』 제2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7, 139~160쪽; 이미순, 『조향의 시어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8집, 국어교육학회, 2011, 355~384쪽; 박민규, 『신시론과 후반기 동인의 모더니즘 시 이념 형성 과정과 그 성격』, 『어문학』 제124집, 한국어문학회, 2014, 307~339쪽; 김양희, 『해방기 조향 시 연구 - ‘낭만’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6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19~152쪽.

활동과 결부시켜 시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⁴⁾ 연구 경향을 일별하면 초현실주의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두루 알다시피 그는 시인이자 교육자로서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국어와 문학을 담당하였다. 동아대학에서 문학교육 교재로 활용한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서울: 행문사, 1948.12), 『現代國文學粹』(부산: 자유장, 1952. 11), 『大學國語 現代文學』(부산: 자유장, 1958.4)은 그의 문학교육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문학교육용 교재다.⁵⁾ 그런데도 이제껏 조향의 교육 활동에는 주목하지 않았으며, 그의 문학관이 대학국어 또는 현대문학 교육용 교재 발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교재의 성격과 특성이 어떠한지를 밝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⁶⁾ ‘대학국어’ 교재로 출판된 3권의 문학독본은 그의 문학적 지향과 문학사적 안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광복기 문학독본의 생산과 향유는 국어교육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문교부 발행 공식적인 국어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에 대한 열망

4)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 - 중앙 시단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17~143쪽; 홍래성, 『조향의 초현실주의 시론의 발현과정과 특질에 대하여』, 『인문논총』 제71권 제3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285~321쪽; 노춘기, 『해방기 조향의 시적 지향 - 동인지 『낭만파』와 『죽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8집, 우리문학회, 2015, 261~288쪽.

5) 이 책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다. 『대학국어』, 부산: 국제신보사출판국, 1962.3. ; 『개정 대학국어』, 서울: 현대출판사, 1966.3. 이 논문에서는 조향의 문학적 관점을 오롯이 확인할 수 있는 광복기와 1950년대에 발간된 3종의 문학독본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50년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1960년대 교재는 ‘[표 5] 『대학국어』(국제신보사출판국, 1962.3) 목차’와 ‘[표 6] 『개정 대학국어』(현대출판사, 1966.3) 목차’로 논문의 끝에 제시해 두었다.

6) 후반기 동인의 이념과 관련지어 3권의 교재를 간단하게 비교한 논의가 눈에 띈다. 홍래성, 앞의 논문, 306~307쪽. 또한 1954년에서 1959년 사이에 발간된 여러 대학의 교양국어 교재와 함께 『大學國語 現代文學』(부산: 자유장, 1958.4)을 부분적으로 다룬 논의도 있다. 박숙자, 『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4, 472쪽.

을 일정하게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문학독본이다.⁷⁾ 대체로 선(選), 수(粹), ‘문감(文鑑)’, 독본(讀本), 교본(教本) 등의 다양한 명칭을 달고 발간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국어과의 부교재로 기능했다면, 대학에서는 대학국어나 교양문학교육의 주교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는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에 발간된 대학국어 교재의 과도기적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조향의 『現代國文學粹』와 김사엽의 『朝鮮現代詩選』(전기, 중기)은 문학독본이 대학국어의 교재로 활용된 이 시기 교양문학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교재다.

일반적으로 ‘대학국어’ 또는 ‘대학교양국어’라는 표제를 달고 대학생들의 교양문학교육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이후라 알려져 있다.⁸⁾ 대표적으로 『대학국문선』(서울대 교양과목교재출판위원회 국어과분과위원회 엮음, 을유문화사, 1954)이나 『교양국문선』(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교수실 엮음, 이화여대출판부, 1955), 『대학교양국어』(고려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실 엮음, 고려대출판부, 1956), 『대학국어』(국어교육분과위원회 엮음, 연세대출판부, 1956)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1950년대 대학국어의 실상을 논의할 때 주된 텍스트로 사용하는 교재 목록이기도 하다. 이 시기 대학국어 교재는 양재연과 김민수가 엮은 『대학국어』(영화출판사, 1955)처럼 편자가 개인 또는 여럿이거나 대학이나 학회, 학과 단위에서 발행한 경우가 지배적이다. 그런 점에서 조향이 발간한 대학국어 교재는 발행 시기나 편찬주체의 단일성, 작품 감상에 초점을 맞춘 현대문학작품 중심의 편제, 교재 성격의 독자성으로 보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발간한 대학 문학교재가 전혀 없지는 않다. 광복 직후부터 대구 지역의 국

7) 광복기 문학독본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는 이순옥,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 현대시 제재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11, 155~194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8) 정연희, 『대학교양교육에서 본 교양문학교육의 위상과 방향』, 『우리어문연구』 50집, 우리어문학회, 2014, 314쪽.

어교육을 주도하면서 『신생국어교본』이나 『조선문학사』를 발간한 김사엽이 대표적이다. 『조선현대시선 - 전기』(대구사범대학 국문학회, 1952)와 『조선현대시선 - 중기』(경북대 사범대학 국문학회, 1952) 『국문학독본』(대동문화사, 1953)은 모두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경북대 사범대학 국어과 교재로 기획된 문학독본들이다. 『조선현대시선』은 이념지형에 따른 문단재편으로 당시 출판시장에서 배제된 납월북, 재북 시인의 시를 두루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인 교재라 할 수 있다.⁹⁾ 이처럼 대학이나 학회, 편집주체의 선택에 따라 대학국어 교재의 구성과 체재는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1950년대 후반까지는 대학국어에서 문학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다가 대학국어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문학은 글쓰기 교육의 소재로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거나 서서히 약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¹⁰⁾

최근 들어 교양교육의 측면에서 『대학국어』의 편제나 특성, 대학국어 교재에 수록된 국문학 작품의 내용과 특성, 정전 형성과 국어교재의 관련성을 고찰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¹¹⁾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점에서 교양문학교육에서 작품의 선택과 배열은 문학정전의 형성 논리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은 1949년 12월부터 1958년 4월에 이르기까지 개정 증보를 거듭한 3종의 문학독본을 대상으로 문단재편에 따른 교재의 체재와 성격 변화, 수록작가와 작품의 변화, 문종의 변화 양

9) 『조선현대시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 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회』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 375~383쪽을 참고할 것.

10) 동아대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1970년대 대학국어 교재에서 문학은 아예 빠지고 글쓰기 중심으로 재편된다. 대학국어교재편찬위원회 엮음, 『大學國語演習』, 태화인쇄소, 1977.3.

11) 대표적으로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김동환, 『현대문학 정전 형성과정에서의 “대학교양국어” 교재의 역할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 10, 527~556쪽. ; 박숙자, 앞의 논문, 451~483쪽.

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편찬주체 조향의 문학적 지향점, 근대문학사에 대한 인식, 문학교육의 관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문학교육사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사에서 온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향문학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 한다.

2. 문학독본의 발행 동기와 교양으로서의 대학 문학교육

조향은 1946년 마산공립상업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6월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 경남지부 결성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발간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알렸다.¹²⁾ 마산에서 홀로 분투하며 발간하던 『낭만파』가 탁소성이 주도한 『중성』(월간, 주간)과 함께 청문협 경남지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매체 발행인으로서의 입지를 튼튼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향은 경남 지역 우파 문학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었다. 청문협 마산지부의 대표로 일하던 그가 부산으로 건너와 동아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은 것은 1947년 무렵이며, 조교수로 임용된 것은 1950년 6월 1일의 일이다.¹³⁾ 그가 대학에서 문학교육을 담당한 것은 청문협 결성을 전후한 시기라 볼 수 있는 셈이다. 1946년 6월 개교한 남조선법문학원 시기부터 문학 예과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이 무렵 국립부산수산대학(부경대학교의 전신)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문학교재 개발은 강의의 편의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12) 청문협 경남지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3, 189~226쪽을 참고할 것.

13)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앞의 책, 405쪽.

14) “고전문학은 전공도 아니면서 울며 회 먹는 격으로 강의를 계속해 온지 어언 삼년이 흘러갔다.” 조섭제, 「책머리에」, 『大學國文學 古典文學粹』, 부산: 자유문화사, 1950.2.

적인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강의 당사자인 자신이 집필한 교재가 아니라 다른 이가 발간한 단행본 교재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만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1950년대 후반까지 발간한 대학국어(고전문학, 현대문학) 교재 4종의 서문을 통해 교재 발간동기와 교재에 대한 조향의 인식을 살펴보자.

① 지난 일 년 동안 남이 만든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 봤으나 어쩐지 남의 저고리 빌려 입은 것 같은 못마땅함과 불편함을 느꼈기에 초라할진 모르나 내 손으로 맞춘 저고릴 하나 만들어 본 셈이다. 아시당초부터 열은 지식과 없는 재주와 모자라는 경험은 각오한 바이니, 이런 길에 능하신 선배 제현의 가르치심이라면 달게 받을 아량도 준비되어 있다.¹⁵⁾

② 그래도 우리 신문학이 시작된 뒤로 종합적인 안소로치이로서 요만한 것도 일찍이 나온 일이 없다는 데에 조그마한 자량이나마 가져 보니까?¹⁶⁾

③ 나의 문학의 길이 옳다고 신념하기 때문에 시, 소설, Essay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現代派 사람들에다가도 중점을 둔 셈이다.¹⁷⁾

④ 고전문학은 전공도 아니면서 울며 회 먹는 격으로 강의를 계속해 온지 어언 삼년이 흘러갔다. 그 동안에 나는 우리나라 고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느끼게 되어 내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의 온갖 서적을 다 들추어 보았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선배님들이 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널리 텃치하여 좀더 다채로운 것을 하는 충동에서 이 책을 엮어 본 것이다.¹⁸⁾

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조향이 강단에서 사용한 “남이 만든 책”

15) 『머리말』,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서울: 행문사, 1948.12.

16) 『책 머리에』, 『現代國文學粹』, 부산: 자유장, 1952.11.

17) 『책 머리에』,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자유장, 1958.4.

18) 『책 머리에』, 『大學國文學 古典文學粹』, 부산: 자유문학사, 1950.2.

은 당시 광범위하게 발간된 문학독본류나 문학개론류 서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직후 이운재, 정렬모, 정인승, 유열, 정태진, 김원표, 김사업, 방중현, 김형규 등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나 이하운, 박태원, 이석훈, 이태준, 이병기 등의 문학인들이 잇따라 문학독본을 발간하였다.¹⁹⁾ 문학독본류 서적들은 당시 조선어교육에 대한 일반대중의 열망을 충족하는 한편, 민간단체에서 운영한 한글교습소나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부독본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김기림과 백철, 홍효민이 발간한 문학개론류 서적²⁰⁾ 또한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대학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독본이나 문학개론류 서적이 당시 그가 문학예과에서 담당했던 ‘대학국어’의 교재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48년 12월 발간된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의 구성과 편집 체재, 수록 작품의 갈래와 성격을 통해 볼 때, 서양 문학이론 중심의 『문학개론』보다는 문학독본류 서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조선어학회 회원들이나 우파 문인들의 저작물일 여지가 다분하다. 이 시기 청문협이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경남지부에 기반한 그의 조직 활동, 반사회주의적인 이념 성향과 조선문학가동맹 계열의 문인에 대한 극도

19) 이 시기에 발간된 대표적인 문학독본류 서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운재 엮음, 『文藝讀本』(상·하 합편), 한성도서주식회사, 1945; 정렬모 추림, 『한글문예독본』 첫권 - 담권, 신흥국어연구회, 1946; 박태원 엮음, 『中等文範』, 정음사, 1946; 이태준, 『尙虛文學讀本』, 백양당, 1946; 유열 엮음, 『중등국문독본』 상, 부산: 한얼문음·학생동무사, 1946; 이하운 가려엮음, 『現代國文學精髓』, 중앙문화협회, 1946; 정태진·김원표 엮음, 『중등국어독본』, 한글사, 1946; 이명선, 『朝鮮古典文學讀本』, 신문사, 1947; 이석훈 엮음, 『文學鑑賞讀本』, 백민문화사, 1947; 이병기 엮음, 『文學讀本』 상, 상문당, 1948;

20) 김기림, 『문학개론』, 신구문화사, 1945; 백철, 『문학개론』, 동방문화사, 1947/1948/1949; 홍효민, 『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9; 구자균, 『국문학개론』, 일성당서점, 1948. 김기림의 『문학개론』은 초판을 찍은 이래 출판사를 달리하여 문우인서관(1946), 신문화연구소(1946), 민중서관(1950) 등에서 간행했으며, 백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학개론류 서적들의 잇따른 발행은 제도교육, 특히 대학의 문학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방증하며, 1950년대에 들어 김동리(1952), 조연현(1953) 등의 『문학개론』 발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의 반감²¹⁾, 『낭만과』나 『죽순』지에 발표한 그의 문필 활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의 교재 발간은 광복기 부산 지역의 문단 활동에서 대척적인 위치에 있었던 문화인들의 교과용 도서 발간 경험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유열과 이주홍의 교과용 도서 저작 활동이 그것이다. 물론 그가 1946년 유열이 간행한 한글강습용 『중등국문독본』을 강의용 교재로 사용했을 리 만무하다. 광복 직후 부산수산전문학교 교수로 일했던 유열은 조선문학동맹 부산지부와 조선예술동맹 부산지구협의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요산 김정환이 이끈 좌파 문화운동의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이다.²²⁾ 그런데도 청문협 경남지부 결성 직전에 발간된 『중등국문독본』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좌파문인 이주홍이 1947년 9월 이후 동래중학교(현 동래고등학교)와 국립부산수산대학에서 국어와 문학을 교수할 때 유인본 교재를 만들어 활용했다는 점²³⁾도 그의 교재 개발을 추동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대학 문리학부 강사로 일하던 무렵²⁴⁾ 조향은 독자적인 문학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자심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는 그러한 고민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21) 이는 다음 진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민족진영의 시인으로서 좌계문인들과 맹렬히 싸웠다. 청년문학가협회 마산지부장, 문총 경남지부 출판부장 겸 문학부책임위원 노릇을 하면서 좌계문인들과는 언제나 정면충돌이었다.” 조향, 『20년의 발자취』, 『조향전집 2』, 김수경 엮음, 열음사, 1994, 42쪽.

22) 이 시기 유열의 조직 활동과 한글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순욱, 『광복기 부산 지역 한글운동과 『한얼』』, 『우리문학연구』 제53집, 우리문학회, 2007, 409~433쪽을 참고할 것.

23) 이 무렵 향과 이주홍이 편찬한 유인본 교과용 도서는 『신고국문선』(연대 미상), 『국문학발생서설』(연대미상), 『이조문학 개관(1949)』 등이 있다.

24) 동아대학은 1947년 12월 학교 설립 정식 인가를 얻을 당시 기존의 학제(신학부, 정경학부, 법문학부, 문학예과)를 법학부(법률학과), 문리학부(정치경제학과, 문과, 수학과, 물리학과)로 개편하였다. 『동아대학교 50년사』, 동아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1998, 4~18쪽.

④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전문학독본을 발간할 때도 “여태까지 선배님들이 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널리 텃치하여 좀더 다채로운 것을 하는 충동”이 교재 발간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고전을 고전이 있는 그 좌표에서만 보는 것”이 “너무나 고루한 古典觀”이라면, “고전을 살려서 현대의 血液 循環路에다 집어넣는 노릇”을 “動學的인 고전연구”²⁵⁾라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문학사적 실재로서 고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현대적 해석과 창조적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향이 이러한 교재 개발을 통해 그가 교양문학교육에서 추구한 가치는 무엇일까.

교양은 존재보다 생성에 더 흥미를 갖는다. 아니, 갖는 것이 아니고 가져야 한다. 존재는 고정적인 것이요 정학적(靜學的)인 것이지만, 생성은 유동적인 것이며, 따라서 동학적(動學的)이다. 하기 때문에, 교양은 기성 상태에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고, 끊임없는 발달과 생성에 더 많은 의의를 두게 되는 것이다.

교양은 또 내면적인 완성에 대한 노력이다. 하기 때문에 교양인의 행동이나 태도에는 침착성과 정온성(靜穩性)이 깃들게 된다. 그러한 침착성과 정온성은 그들의 정신 내부에 갖고 있는 조화와 평화와 만족의 증거인 것이다.²⁶⁾

그에 따르면 교양이란 인간 완성을 위한 연구와 노력²⁷⁾을 의미한다. 교양의 탐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생성 내지는 동학(動學), 내면적 완성에 대한 노력이다. 이때 대학교양교육으로서 문학은 이러한 인간 완성, 즉 진선미를 탐구하는 핵심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학교육이 본질적으로 다른 학문의 기초 교육이 될 수 없고, 교양교육이 될 수밖에

25) 「책 머리에」, 『大學國文學 古典文學粹』, 부산: 자유문학사, 1950.2.

26) 조향, 위의 글, 20쪽.

27) 조향, 「대학·지성·인생관·세계관」, 앞의 책, 1994, 19쪽.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⁸⁾ 그런 점에서 수용자의 문학 교양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조향은 교수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라는 관점에 찬성할 수 없다²⁹⁾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교양문학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가 문학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문학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바로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와 『大學國文學 古典文學粹』라 볼 수 있는 셈이다. 문학을 매개로 중심적인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주어진 현실로부터의 탈주를 추동하는 것이야말로 조향이 추구하는 교양문학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었을까.

①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국어 교재의 발간은 “어쩐지 남의 저고리 빌려 입은 것 같은 못마땅함과 불편함”에서 촉발되었다. 1948년 초판에서는 “아직도 넣고 싶은 것이 넣은 것의 몇 갑절이나 남아 있”을 만큼 “가난한 것”³⁰⁾을 내어 놓는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는 기존의 문학독본류 서적의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결과에서 연유한다. 무엇보다도 1952년판에 비해 그의 문학적 자의식을 교재에 적극적으로 투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1948년판에서 시론 1편(『斷章抄』)과 시 4편(『花粉의 거리』, 『아! 나의 다음 날의 寄港地여!』, 『EPISODE』, 『體操』)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판과 1958년판으로 갈수록 초현실주의에 대한 그의 문학적 태도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이는 교재에 수록된 자신의 시가 5편(1948)에서 10편(1952)³¹⁾, 17편(1958)³²⁾으로 증가한다는 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28) 이대규, 「대학의 변화와 대학 교양 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556쪽.

29) 조향, 『양케이트』, 앞의 책, 1994, 33쪽.

30) 『머리말』,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서울: 행문사, 1948.12.

31) 『少女 (1)』, 『青春의 TACT』, 『가을과 少女의 노래』, 『EPISODE』, 『바다의 層階』, 『1950年代의 斜面』, 『transparent 午後』, 『SARA DE ESPERA (3), (5), (12)』

32) 『소녀 (1)』, 『청춘의 TACT』, 『가을과 少女의 노래』, 『植物의 章 (抄)』,

무엇보다도 초현실주의적인 경향의 시를 대폭 수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②에서처럼, 1952년 개정 증보판을 내면서 “우리 신문학이 시작된 뒤로 종합적인 안소로치이로서 요만한 것도 일찍이 나온 일이 없다.”고 단언한다. ③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1958년판에서는 “나의 문학의 길이 옳다고 신념하기 때문에 시, 소설, Essay할 것 없이 모두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른 現代派 사람들에다가도 중점”을 두고 교재를 구성하게 된다. 그만큼 기존의 문학독본류 서적이나 대학국어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교재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초현실주의의 문학을 이론화하고 교육제도에 확산시키고자 한 기획의 산물로 읽힌다는 점에서 당대 균형적인 문학 교양과 지식을 추구하는 데 주력했던 다른 대학의 교재와는 확연한 차이를 지닌다. 이는 그가 1949년 여름 결성된 후반기 동인 활동과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현대문학연구회를 거치면서 초현실주의 시와 시론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거듭 강화해 나간 결과로 볼 수 있다.³³⁾

3. 문학독본의 체재와 성격 변화

문학독본은 독자의 문학교양과 지식 함양, 문학교육을 위한 주요한 매체다. 그것은 대체로 정전화된 문학텍스트를 수용하여 과거의 문학전통과 현재의 요구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문학독본의 정전

『EPISODE』, 『바다의 層階』, 『1950年代의 斜面』, 『透明한 午後』, 『SARA DE ESPERA (抄)』, 『검은 DRAMA』, 『어느 날의 MENU』, 『외니편에서 나타난 灰色의 사나이』, 『어느 날의 地球의 밤』, 『秋風感別曲』, 『검은 神話』, 『綠色 椅子가 앉아 있는 베란다에서』, 『文明의 荒蕪地』

33) 홍래성도 ‘대학국어 시리즈’를 통해 조향의 후반기 동인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후반기 동인 시기를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 못했으나 내적으로는 초현실주의 시론을 꾸준히 다듬어나간 일종의 모색기이자 그것의 점차적 발현기”로 규정했다. 홍래성, 앞의 논문, 307쪽.

목록은 편집주체의 이념 성향과 문학에 대한 태도, 주류 문학사회의 이데올로기, 사회·정치적 상황, 당대사회에서 요청되는 지식과 교양의 성격, 독서시장이거나 교육제도의 요구, 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문학독본은 정전 형성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매체다.³⁴⁾

1948년에 발간된 『대학국어 현대국문학수』는 단정 수립 이후의 문단 재편 결과와는 다른 지점에서 월북·재북 시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조향의 교재 편찬 의도와 관련 있다. 특히 시의 경우 “大略이란 의미에서 各各의 史的 立場을 밝혀 보려고는 했”다는 「머리말」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표 1]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행문사, 1948.12) 목차

1	解放詞華抄	김광섭, 「解放의 노래」, 「祖國」 유치환, 「植木祭」 김기림, 「새나라頌」 조향, 「花粉의 거리」, 「한가위」
2	이태준	民族·言語·文學
3		己未獨立宣言文
4	양주동	爐邊의 鄉思
5	박종화	時調論
6	新時調	최남선, 「檀君窟에서(妙香山)」 이광수, 「뵈오러 갔던 길」 주요한, 「메주」 변영로, 「昆蟲 九題 抄 - 자벌레, 반딧불, 오줌싸개」 이은상, 「球庭」, 「고향 생각」, 「成佛寺의 밤」 정인보, 「槿花詞 三疊」 이병기, 「蘭草」, 「젓」, 「풀버레」 조운, 「獨坐」, 「長吟」, 「찬밤」

34) 이순옥,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 현대시 제제를 중심으로」, 앞의 책, 157쪽.

35) 1952년판과 1958년판 문학독본의 목차는 논문의 끝자리에 [표 3] 『現代國文學粹』(자유장, 1952.11) 목차와 [표 4] 『大學國語 現代文學』(자유장, 1958.4) 목차로 제시해 두었다.

		김상옥, 「鳳仙花」, 「鞦韆」 김영기, 「길」 김영진, 「樂浪 古鏡 賦」 이호우, 「무덤」 조남령, 「鄉愁」, 「蘆湖(箱根紀行)」
7	이인영	새로운 歷史學의 課題
8	김광섭	隨筆文學 小考
9	조윤제	朝鮮小說史 概要
10	시작품 (1)	김소월, 「먼 後日」, 「진달래꽃」, 「山有花」, 「엄마야 누나야」 이상화, 「나의 寢室로」 홍사옹, 「나는 王이로소이다」 박종화, 「白磁賦」, 「內霧在嶺」 한용운, 「秘密」 정지용, 「白鹿潭」, 「나비」, 「海峽」, 「다시 海峽」, 「湖水 1」, 「湖水 2」, 「湖面」, 「겨울」 임화, 「바다의 讚歌」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11	윤희순	繪事閑想
12	이희승	國語의 語感
13	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
14	김기림	새 人間性和 批評精神
15	구자균	平民文學의 發生
16	정지용	詩와 言語 詩와 發表
17	시작품 (2)	김기림, 「바다와 나비」, 「共同墓地」 유치환, 「生命의 書(一章)」, 「蜀葵 있는 漁村」 모운숙, 「오빠의 눈에」 김윤식, 「모란이 피기까지」 김광섭, 「마음」 백석, 「모닥불」 서정주, 「花蛇」, 「歸蜀途」 오장환, 「城壁」, 「The Last Train」 이용악, 「오랑캐꽃」 김광균, 「都心地帶」, 「鄉愁」, 「눈 오는 밤의 詩」
18	김환태	文學의 性格과 時代
19	조향	斷章 抄
20	안영일	演劇의 根源性
21	함세덕	童僧(一幕)
22	유진오	文學과 性格
23	현진건	歷史小說 問題

24	김관	午前 11時の 토이키이 美學論
25	박지우	研究와 發表의 自由
26	시작품 (3)	김중환, 「납은 우물이 있는 風景」, 「故園의 詩」, 「그늘」, 「海巷」 박두진, 「墓地頌」, 「雪岳賦」 조지훈, 「僧舞」, 「古風衣裳」 박목월, 「보리 누름 때」, 「閏四月」, 「감사대기」 이한직, 「風葬」 김춘수, 「山莊」, 「숲에서」, 「黎明」 조향, 「아! 나의 다음 날의 寄港地여!」, 「EPISODE」, 「體操」

전체 26과로 편제된 1948년판은 시, 소설, 희곡, 수필, 비평, 문학론, 역사, 미술, 미학 등 다양한 갈래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시조론」, 「수필문학 소고」, 「조선소설사 개요」, 「평민문학의 발생」, 「시와 언어」, 「시와 발표」, 「문학의 성격과 시대」, 「斷章抄」, 「연극의 근원성」, 「문학과 성격」, 「역사소설 문제」 등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글들이다. 이처럼 이 교재는 단원 중심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과 작품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수록 작품의 경우 시가 압도적으로 많고, 소설이나 희곡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설의 경우 「모밀꽃 필 무렵」 1편, 희곡은 「동승」 1막만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면 부족에 연유한 바 크다. 「머리말」에서 “아직도 넣고 싶은 것이 넣은 것의 몇 갑절이나 남아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종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전중기나 전후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설을 포함한 서사갈래의 비중이 적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는 당시 발간된 문학독본류 서적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자 중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중등국어교본』이나 『중등국어』의 구성방식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 갈래의 경우에는 시조(6과)와 시(10과, 17과, 26과)를 분리하여 편성하되, 등단 순서에 상관없이 배열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시조의 경우, 문학사에서 익숙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김영기(金永起)와 김영진(金永鎭)을 복권시키

고 있다. 시는 민족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해방사화초」를 1과에 배치하여 광복의 의미와 새롭게 수립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환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미독립선언문』을 수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광복 직후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교과서와 문학독본류 서적에서 한결같이 광복의 감격과 민족의 재발전을 호출했던 방식과 흡사하다. 또한 10과에 1920년대 시인(김소월, 이상화, 홍사용, 박종화, 한용운, 정지용, 임화, 김동환), 17과에 1930년대 시인(김기림, 유치환, 모운숙, 김영랑, 김광섭, 백석, 서정주, 오장환, 이용악, 김광균), 26과에 1940년대 시인(김중환, 박두진, 조지훈, 박목월, 김춘수, 조향)을 배치함으로써 시사적 전통을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이 교재는 광복기 국어교과서나 문학독본에 수록된 기존의 작가 정전을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 교재와 『중등국어교본』(상, 중, 하)에 작품을 발표한 시인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김광섭, 김기림, 김소월, 변영로, 오장환, 이병기, 이은상, 임화, 정인보, 정지용, 조지훈, 주요한, 한용운은 『중등국어교본』에도 작품이 수록된 시인이다. 물론 조향은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를 제외하고는 단 한 편도 동일한 작품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중등국어』(1-3)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교과서에서는 오장환과 임화, 주요한, 정인보가 빠져 있으나, 『중등국어교본』과 달리 조운과 김상옥의 작품을 신고 있다. 『중등국어』(1-6)에는 수록되었으나 『현대국문학수』에서 배제된 시인은 윤곤강, 김억, 신석정이다. 이은상, 김상옥, 김광섭, 조지훈, 이병기, 서정주, 정인보, 김영랑, 박두진, 박종화는 공통적으로 작품을 신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남한 문학사회의 문단재편 결과와는 다르게 이태준, 조운, 정지용, 임화, 함세덕, 오장환, 백석 등 월북·재북문학인들의 작품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근대문학사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친일과 저항,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차원에 상관없이 근대시의 전통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조향이

편찬한 교재는 『머리말』에서 “서투른 編年史的인 것”이 되어 버렸다고 언급했을 만큼, 근대시사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배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의 교재나 1950년대 발간된 대학국어 교재에서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국어교재 편찬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문학사적 평가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광복기 국어교과서가 『중등국어교본』에서 『중등국어』 체제로 넘어가면서 특정 작가의 선택과 배제, 작품수의 부분적인 재편과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다 단정 수립 이후 좌파문학인에 대한 흔적 지우기가 가파르게 진행되었다³⁶⁾고 볼 때, 수록 작가의 면면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말할 수 있다. 자기검열을 폐기했다는 보다는 문학사적 가치에 따라 수록 작가를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광복 직후 청문협과 문총 경남지부 활동을 통해 우파 민족주의자로서의 문학적 위상이 암묵적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본다.³⁷⁾

그러나 1952년 11월 수정증보판을 낼 때에는 체제와 구성, 수록작가와 작품의 성격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체제와 구성 변화를 통해 편찬주체인 조향의 문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교재의 구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중기에 간행된 개정판 『現代國文學粹』는 단정 수립 이후 문단재편의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독본이다. 이 책은 초판과는 달리 시, 소설, Essay(비평과 논문) 3부로 나누어 신문학 이후의 문학적 성과를 수록하고 있다. 제재를 죽 나열하던 1948년판의 과 중심 편제에서 벗어나 문학을 집중

36) 이순욱,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 현대시 체제를 중심으로』, 앞의 책, 187쪽. 특히 중등학교 국어교재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간섭은 자신했다. 미군정청 발행의 『중등국어교본』에서 정부수립기, 한국전쟁기의 국어교과서인 문교부 발행의 『중등국어』, 『고등국어』 들로 넘어가면서 국어 교재에 담긴 국가주의 시선은 더욱 초점화되었다. 박용찬,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3, 239쪽.

37) 조향은 문총 경남지부가 결성될 당시 출판부장을 맡는다. 『전국문총연합회 경남지부 결성 성대』, 『자유민보』, 1949.7.19., 2면.

적으로 배치했다. 뚜렷한 선정 원칙이나 기준 없이 편찬 주체의 취향에 따라 문학과 비문학 제재를 함께 수록했던 문학독본의 일반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문학 관련 글만을 수록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추었다. 물론 희곡과 시나리오 수필 갈래는 지면 관계로 수록하지 못했으며, 소설의 경우도 분량 면에서는 초판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비록 이효석과 이상의 단편소설 2편을 실는 데 그치고 있지만, 초판과 달리 이상의 소설을 수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문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시 갈래의 경우, 근대시사를 “총람”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교재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의 말대로 지면 관계상 많은 작가들이 배제되었다. 편집 또한 “리레식 편집”으로, 이 또한 종이 부족에 기인한 결과다. 그런데도 전중기에 발간된 여타 시선집이나 문학독본과는 달리 많은 근대시인들의 작품을 수록하여 근대시사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자 했다. 이는 “재료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의 시인의 초기, 중기, 말기(현재)의 작품을 넣으려고 애”³⁸⁾쓴 결과라 하겠다. 전중기 문학독본 으로서는 드물게 정지용, 김동환, 박영희, 김기림 등 전쟁 중 납북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시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1948년판에서 삭제된 시인은 김상옥, 김영기, 김영진, 박종화, 백석, 변영로, 오장환, 이광수, 이용악, 이은상, 이호우, 임화, 정인보, 조남령, 조운, 최남선이다. 시조시인은 죄 빠졌는데, 오히려 이병기의 시조만이 3편에서 10편으로 증가하여 수록되었다. 임화, 이용악, 오장환, 백석, 조남령 등의 월북(재북) 시인이 배제된 것은 전시라는 특수 상황에 말미암는다. 반대로 김경린, 김규동, 김상용, 김억, 김차영, 김현승, 노천명, 박남수, 박영희, 박인환, 신석정, 양명문, 오상순, 이봉래, 이상, 이육사, 장만영, 조영암을 새롭게 편입시켜 근대시사의 목록을 완전하게 재구성하고자 했다.

시기를 달리하여 수정 증보를 거듭한 이 교재에 수록된 시인의 현황

38) 『책 머리에』, 『現代國文學粹』, 부산: 자유장, 1952.11.

과 작품편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재별 수록 시인과 작품편수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행문사, 1948.12)	『現代國文學粹』 (자유장, 1952.11)	『大學國語 現代文學』 (자유장, 1958.4)
김광균(3), 김광섭(3), 김기림(3), 김동환(1), 김상옥(2), 김소월(4), 김영기(1), 김영랑(1), 김영진(1), 김종한(4), 김춘수(3), 모운숙(1), 박두진(2), 박목월(3), 박종화(2), 백석(1), 변영로(1), 서정주(2), 오장환(2), 유치환(3), 이광수(1), 이병기(3), 이상화(1), 이용악(1), 이은상(3), 이한직(1), 이호우(1), 임화(1), 정인보(1), 정지용(8), 조남령(2), 조운(3), 조지훈(2), 조향(5), 주요한(1), 최남선(1), 한용운(1), 홍사용(1)	김경린(6), 김광균(18), 김광섭(13), 김규동(4), 김기림(20), 김동환(5), 김상용(6), 김소월(11), 김억(4), 김영랑(6), 김종한(12), 김차영(3), 김춘수(3), 김현승(2), 노천명(6), 모운숙(3), 박남수(8), 박두진(6), 박목월(9), 박영희(3), 박인환(6), 서정주(13), 신석정(8), 양명문(1), 오상순(2), 유치환(18), 이병기(10), 이봉래(2), 이상(12), 이상화(2), 이육사(5), 이한직(10), 장만영(7), 정지용(22), 조영암(3), 조지훈(7), 조향(10), 주요한(3), 한용운(6), 홍사용(2), 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1)	김경린(11), 김광균(23), 김광섭(13), 김소월(22), 김억(4), 김영랑(7), 김종한(12), 노천명(9), 박남수(8), 박두진(6), 박목월(12), 박영희(5), 박인환(13), 서정주(23), 신석정(9), 오상순(2), 유치환(20), 이병기(10), 이상(28), 이상화(2), 이한직(9), 조지훈(14), 조향(17), 주요한(8), 한용운(7), 홍사용(3), 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1)
80편	298편	298편

* 괄호 안의 숫자는 수록 작품 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現代國文學粹』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후반기 동인의 전면적인 부상이다. 1948판은 시사적 개관이라는 취지 아래 전통성, 순수성, 저항성, 민족성의 가치를 중시한 작품을 선정하고 배치했다. 그런데 1952년판에서는 후반기 동인의 시를 현대시사의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편집주체가 지향하는 초현실주의의 이념과 문학적 좌표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향 자신의 시뿐만 아니라 김경린, 이봉래, 박인환, 김차영, 김규동의 시와 함께 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 1편을 수록한 것은 후반기 동인의 문학적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차례』의 배열에서도 확연하게 강조된다. 활동 시기에 따라 주요한에서 양명문에 이르는 34명 266편의 시를 수록한 다음, 한 줄을 비우고 후반기 동인 6명의 시 32편(합작시 포함)을 배치함으로써 문학적 경향과 시사적 위상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 교재를 “신문학이 시작된 뒤로 종합적인 안소로지이로서 요만한 것도 일찍이 나온 일이 없다.”고 한 것도 이러한 문학적 자부심의 표현이다. 교양문학교육 교재를 통해 후반기 동인의 문단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상징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 동인은 공식적으로 동인지출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욕망과 문학적 관점을 제도교육의 장에서 대중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교재는 후반기 동인의 문학적 이념을 실천한 최초의 앤솔리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이 교재는 대학 문학교육의 장에서 현대문학교육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58년 4월에 발간된 『大學國語 現代文學』은 1952년판의 내용을 크게 보완한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체제는 시, 소설, Essay로 1952년판의 구성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편자 자신의 『현대시론』과 『현대소설론』을 작품의 서두에 배치하여 감상의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편제를 체계화하였다. 주요한, 김소월, 이상의 시를 대폭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경린, 조향, 박인환의 시는 무려 41편을 수록하였다. 합작시를 제 포함하여 총 26명 298편으로, 1952년판의 40명 298편과 동일하다. 이는 연습시간의 교재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학의 길이 옳다”(『책머리에』)고 여긴 까닭에 “형식적인 망라주의”보다는 “중점주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에서 1952년판과는 달리 김규동, 김기림, 김동환, 김억, 김상용, 김차영, 김춘수, 김현승, 모운

숙, 양명문, 이봉래, 이육사, 장만영, 정지용, 조영암의 시는 빠졌다. 그의 말대로 시사(詩史)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취사선택이라 할 만하다.

특히, 김규동, 김차영, 이봉래가 배제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봉래의 경우 합작시에는 이름을 올렸다. 김경린, 박인환 정도를 이념적 공감의 대상으로 여긴 결과라 보는 견해도 있다.³⁹⁾ 하지만, 단순한 친분관계나 작품 수록 여부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이다. 후반기 동인은 각자의 작품세계나 문학관이 다르기는 했으나, “만나면 즐겁고 행복했으며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별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다.⁴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 교재에 수록할 작품의 선정에 편집 기준의 변화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소설에서는 사실주의에서 심리주의로 옮겨간 문학사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이효석(『모밀꽃 필 무렵』)과 이상(『날개』), 김동인(『감자』), 자신의 소설(『九官鳥』)을 수록하고 있다.

4. 마무리

이 논문에서는 1948년 12월 초판을 낸 이래 1952년 11월과 1958년 4월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증보판을 간행한 조향의 문학독본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편찬주체의 문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근대문학사에 대한 시각, 문학독본과 문단재편의 이념, 문학독본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1950년대 문학교육의 실체와 방향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문학교육이 어떠한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문학교육과 어떠한 영향 관계에 놓이는

39) 홍래성, 앞의 논문, 306쪽.

40) 김규동, 앞의 글, 230쪽.

지, 나아가 당대를 지배했던 교양교육과는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광복기 대학국어 교재용으로 간행된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는 마산공립상업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의 기관지 『浪漫派』를 주재하던 조향이 일터를 동아대학교로 옮겨와 처음으로 발간한 매체다. “지난 일 년 동안 남이 만든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 봤으나 어쩐지 남의 저고리 빌려 입은 것 같은 못마땅함과 불편함”을 느꼈다는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손수 맞춘 “저고리”가 바로 이 독본인 셈이다. 전체 26과로 구성된 초판본은 남한 문학사회의 문단재편 결과와는 다르게 이태준, 조운, 정지용, 임화, 함세덕, 오장환, 백석, 박치우 등 월북·재북문학인들의 작품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근대문학사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또한 체재 면에서는 당시 중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중등국어』의 구성방식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전중기에 간행된 개정판 『現代國文學粹』는 단정 수립 이후 문단재편의 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이 책은 초판과는 달리 시와 소설, Essay(비평과 논문) 3부로 나누어 신문학 이후의 문학적 성과를 수록하고 있었다. 특히 시갈래의 경우, 근대시사를 총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교재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의 말대로 지면 관계상 많은 작가들이 배제되었다. 그런데도 전중기에 발간된 여타 시선집이나 문학독본과 달리 많은 작품들을 수록하여 근대시사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고자 했다. 정지용, 김동환, 박영희, 김기림 등 전쟁 중 납북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시인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자신의 시뿐만 아니라 김경린, 김규동, 김차영, 박인환, 이봉래의 시를 대폭 수록한 것은 후반기 동인의 문학적 지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비록 이효석과 이상의 단편소설 2편을 실는 데 그치고 있지만 소설을 수록한 점 또한 초판과는 다른 점이다. 이 독본은 제도교육의 장

에서 현대문학교육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1958년 간행된 『大學國語 現代文學』은 1952년판 확장판으로 볼 수 있었다. 주요한, 서정주, 김소월, 이상의 시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김경린, 조향, 박인환의 시는 40편 이상을 수록하였다. 이는 연습시간의 교재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학의 길이 옳다”(『책머리에』)고 여긴 까닭에 “형식적인 망라주의”보다는 “중점주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에서 1952년판과는 달리 김동환, 정지용, 모운숙, 김기림, 김상용, 이육사, 장만영, 김현승, 조영암, 김춘수, 양명문, 이봉래, 김차영, 김규동의 시는 빠졌다. 그의 말대로 시사(詩史)를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취사선택이라 할 만하다. 소설에서는 사실주의에서 심리주의로 옮겨간 문학사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이효석(『모밀꽃 필 무렵』)과 이상(『날개』), 김동인(『감자』), 자신의 소설(『九官鳥』)을 수록하였다.

두루 알다시피 근대문학제도에서 독본은 모범적인 읽기 교재로 발간 당시의 문화적 지향성과 의미를 오롯이 담고 있는 매체다. 편찬주체의 의도나 정치 문화적 지형과 이데올로기의 변화, 독자들의 취향이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성을 입증해 왔다. 무엇보다도 문학독본은 정전 형성의 결과를 담지하고 있는 텍스트다. 문학정전이 한 집단이나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양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학독본의 존재방식과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 글은 식민지 시대와 광복기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문학독본 연구 경향에서 나아가 대상 시기를 1950년대 후반까지 넓히고, 중등교육에서 대학 문학교육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제도교육에서 문학독본의 존재방식과 실체를 규명하려는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학국어나 교양문학교육 교재로 활용된 이들 독본과 마찬가지로 수정 증보판을 여럿 찍

있던 이석훈, 방중현·김형규의 문학독본을 비롯한 많은 문학독본의 개별적 의의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한다면, 1950년대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문학독본의 존재방식과 유통맥락, 기능을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광복기 이후 195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시기 교양문학교육의 심층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의 방법과 체계를 심화하는 데도 유용한 시각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표 3] 『現代國文學粹』(자유장, 1952.11) 목차

시	주요한, 「비소리」, 「가신 누님」, 「부끄러움」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風景」, 「한 잔 술」 김억, 「물레」, 「오다가다」, 「봄바람」, 「燈臺」 김정식, 「진달래꽃」, 「山有花」, 「먼 後日」,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입의 노래」, 「두 사람」, 「못 잊어」, 「가는 길」, 「서울 밤」, 「招魂」, 「엄마야 누나야」 이상화, 「나의 寢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홍사용, 「나는 王이로소이다」, 「흐르는 물을 붙들고저」 박영희, 「月光으로 짠 病室」, 「어둠 너머로」, 「幽靈의 나라」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딸 삼형제」, 「松花江 뱃노래」, 「웃은 罪」, 「江이 풀리면」 이병기, 「大聖庵」, 「蘭草 (4)」, 「水仙花」, 「젓」, 「돌아가신 날」, 「풀버레」, 「소나기」, 「우리」, 「봄 (2)」, 「戲題 (4) 抄」 정지용, 「鄉愁」, 「유리창 (1)」, 「카페·프랑쓰」, 「九城洞」, 「海峽」, 「다시 海峽」, 「湖水 (1)」, 「湖水 (2)」, 「湖面」, 「겨울」, 「地圖」, 「鴨川」, 「해바라기 씨」, 「산 너머 저쪽」, 「병」, 「별똥」, 「무어래요?」, 「무서운 時計」, 「白鹿潭」, 「나비」, 「忍冬茶」, 「曲馬團」 한용운, 「입의 沈默」, 「두견새」, 「당신의 마음」, 「나룻배와 行人」, 「당신을 보았읍니다」, 「繡의 秘密」 모운숙, 「조선의 딸」, 「너를 생각할 때는」, 「河水로 간다」 김기림, 「太陽의 風俗」, 「午後의 꿈은 날 줄을 모른다」, 「海上」, 「潮水」, 「待合室」, 「마을」, 「咸興 平野」, 「牧場」, 「東海水」, 「따리아」, 「日曜日 行進曲」, 「스케이팅」, 「바다와 나비」, 「療養院」, 「공동묘지」, 「추억」, 「유리창과 마음」, 「센토오르」, 「知慧에게 바치는 노래」, 「颱風의 起寢 時間」 김광섭, 「憧憬」, 「꿈」, 「小谷에서」, 「個性」, 「바다의 小曲」, 「橢圓의 表象」,
---	--------------------------------------------------------------------------------------------------------------------------------------------------------------------------------------------------------------------------------------------------------------------------------------------------------------------------------------------------------------------------------------------------------------------------------------------------------------------------------------------------------------------------------------------------------------------------------------------------------------------------------------------------------------------------------------------------------------------------------------------------------------------------------------------------------------------------------------------------------------------------------------------------------------------------------------------------------------------------------------------------------------

	<p>「담배」, 「마음」, 「13行 人生」, 「罰」, 「思惟의 꽃」, 「새나라!」, 「슬픔을 넘어서」</p> <p>김윤식,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늘한 내음」, 「내 마음을 아실 이」, 「동백 잎」, 「꿈밭에 봄마음」, 「四行詩抄」</p> <p>신석정,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밤(栗)」, 「푸른寢室」, 「靑山 白雲圖」, 「작은 짐승」, 「五月이 돌아오면」, 「少年을 위한 牧歌」</p> <p>김상용, 「南으로 窓을 내겠소」, 「마음의 조각 (6)」, 「마음의 조각 (7)」, 「어미소」, 「鄉愁」, 「나」</p> <p>노천명, 「돌아오는 길」, 「사슴」, 「幌馬車」, 「春分」, 「길」, 「男사당」</p> <p>김광균, 「午後의 構圖」, 「해바라기의 感傷」, 「壁畫」, 「外人村」, 「街路樹」, 「瓦斯燈」, 「雪夜」, 「秋日抒情」, 「장곡천정에 오는 눈」, 「눈오는 밤의 詩」, 「都心地帶」, 「鄉愁」, 「은수저」, 「대낮」, 「水鐵里」, 「魯迅」, 「幻燈」, 「덧상」</p> <p>유치환, 「生命의 書 1章」, 「曠野에 와서」, 「首」, 「讀人不知」, 「蜀葵 있는 마을」, 「古代 龍市圖」, 「植木祭」, 「深山」, 「旗入밭」, 「五月雨」, 「六年後」, 「靑山 流雲圖」, 「蜻蛉歌」, 「落葉」, 「산길」, 「最前線」, 「感傷狙擊」, 「편지」</p> <p>이육사, 「靑葡萄」, 「年譜」, 「絶頂」, 「鴉片」, 「曠野」</p> <p>이상, 「詩 第2號」, 「詩 第8號 解剖」, 「詩 第10號 나비」, 「아침」, 「家庭」, 「行路」, 「거울」, 「1933·6·1」, 「詩 第14號」, 「詩 第5號」, 「詩 第1號」, 「破帖」</p> <p>서정주, 「花蛇」, 「문둥이」, 「대낮」, 「高乙那의 딸」, 「입맞춤」, 「봄」, 「부영이」, 「水帶洞詩」, 「復活」, 「桃花 桃花」, 「密語」, 「歸蜀道」, 「鞞鞞詞」</p> <p>장만영, 「風景」, 「羊」, 「달·葡萄·잇사귀」, 「湖水로 가는 길」, 「女人 (1)」, 「女人 (2)」, 「幼年」</p> <p>김현승, 「冬眠」, 「明日의 노래」</p> <p>김중환, 「歸路」, 「살구꽃처럼」, 「故園의 詩」, 「그늘」, 「連峯霽雪」, 「航空哀歌(歸還抄)」, 「海巷」, 「낡은 우물이 있는 風景」, 「路傍」, 「山中」, 「新制作派展」, 「未亡人 R의 肖像」</p> <p>이한직, 「溫室」, 「風葬」, 「北極圈」, 「늬새가 불면」, 「羈旅 抄」, 「飛翔」, 「降下」, 「汎濫」, 「未來의 山上으로」, 「또다시 虛構의 봄이」</p> <p>박두진, 「雪岳賦」, 「墓地頌」, 「靑山道」, 「道峯」, 「해」, 「薔薇의 노래」</p> <p>박목월, 「나그네」, 「청노루」, 「簡易驛」, 「佛國寺」, 「桃花」, 「閏四月」, 「갑사당기」, 「年輪」, 「終點에서」</p> <p>조지훈, 「古風衣裳」, 「僧舞」, 「鳳凰愁」, 「芭蕉雨」, 「피리를 불면」, 「古寺 (1)」, 「불타는 밤거리에」</p> <p>박남수, 「초롱불」, 「酒幕」, 「밤길」, 「距離」, 「寂境」, 「深夜」, 「마을」, 「鎭南浦」</p> <p>조영암, 「弔忠魂」, 「虛 (其7)」, 「虛 (其18)」</p> <p>김춘수, 「黎明」, 「薔薇의 行方」, 「旗」</p> <p>양명문, 「端午」</p>
--	-------------------------------------------------------------------------------------------------------------------------------------------------------------------------------------------------------------------------------------------------------------------------------------------------------------------------------------------------------------------------------------------------------------------------------------------------------------------------------------------------------------------------------------------------------------------------------------------------------------------------------------------------------------------------------------------------------------------------------------------------------------------------------------------------------------------------------------------------------------------------------------------------------------------------------------------------------------------------------------------------------------------------------------------------------------------------------------------------------------------------------------------------------------------------------------------------------------------------------------------------------------------------------------------------------------------------------------------------------------------------------------------------------------------------------------------------------------------------------------------------------------------------------------------------------------------------------------------------------------------------------------------------

	<p>김경린, 「나무끼는 季節」, 「旋回하는 가을」, 「波長처럼」, 「너의 목소리는 木管樂器」, 「빛나는 光線이 올 것을」, 「國際列車는 打字機처럼」 조향, 「少女 (1)」, 「青春의 TACT」, 「가을과 少女의 노래」, 「EPISODE」, 「바다의 層階」, 「1950年代의 斜面」, 「透明的 午後」, 「SARA DE ESPERA (3), (5), (12)」 이봉래, 「遲刻記」, 「透明的 眼球」 합작시(合作詩), 「不毛의 에레지이」 박인환, 「列車」, 「最後의 會話」, 「資本家에게」, 「終末」, 「落下」, 「回想的 긴溪谷」 김차영, 「虛構의 中立地帶」, 「來日의 오늘」, 「하나의 絶頂에서」 김규동, 「不安의 速度」, 「1952년의 郊外」, 「BOILER事件의 眞狀」, 「밤의 階梯에서」</p>
소설	<p>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 이상, 「날개」</p>
Essay	<p>강용홀(姜鏞訖), 客觀的인 文學의 創作을 김기림, 思想과 技術 프로이드와 現代詩 김환태, 文學의 性格과 時代 김문집, 數意識의 直感的 樣相 김광섭, 隨筆文學 小考 김기석(金基錫), 現代精神의 特徵 김경린, 現代詩와 言語의 實驗 백철, 新小說 文學의 登場 유치진, 戲曲論 (抄) 유진오, 文學과 性格 이현구, 佛文學과 自由 이승녕, 文體의 時代的 考察 이희승, 國語의 語感 조향, 20世紀의 文學的 實驗 최재서, 敘事詩·로만스·小說 抒情詩에 있어서의 知性 현진건, 歷史小說 問題</p>

[표 4] 『大學國語 現代文學』(자유장, 1958.4) 목차

시	<p>조향, 現代詩論 (抄) 주요한, 「비소리」, 「봄달잡이」, 「그 봄을 바라」, 「그 봄의 부름」, 「드들로 가 사이다」, 「부끄러움」, 「가신 누님」, 「지금에도 못 잊는 것은」 김억, 「오다가다」, 「봄바람」, 「燈臺」, 「물레」 오상순, 「아시아의 밤」, 「한 잔 술」 박영희, 「幽靈의 나라」, 「어둠 너머로」, 「月光으로 짠 病室」, 「꿈의 나라로」, 「밤하늘은 내 마음」 홍사용, 「나는 王이로소이다」, 「흐르는 물을 붙들고서」, 「시악시 마음은」 이상화, 「나의 寢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정식, 「진달래꽃」, 「山有花」, 「먼 後日」,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임의 노 래」, 「두 사람」, 「못 잊어」, 「가는 길」, 「서울 밤」, 「招魂」, 「옛이야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꿈으로 오는 한 사람」, 「바리운 몸」, 「밭 고랑 위에서」, 「길」, 「금잔디」, 「往十里」, 「접동새」, 「꿈」, 「엄미야 누 나야」, 「鴛鴦枕」 한용운, 「임의 沈默」, 「?」, 「두견새」, 「당신의 마음」, 「나룻배와 行人」, 「당신 을 보았습니다」, 「繡의 秘密」 이병기, 「大聖庵」, 「蘭草 (4)」, 「水仙花」, 「젓」, 「돌아가신 날」, 「풀버레」, 「소 나기」, 「우뢰」, 「봄 (2)」, 「戲題 (4) 抄」 김윤식,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늘한 내음」, 「내 마음을 아실 이」, 「동백잎」, 「꿈밭에 봄마음」, 「四行詩 (抄)」, 「春香」 김광섭, 「憧憬」, 「꿈」, 「小谷에서」, 「個性」, 「바다의 小曲」, 「0-橢圓의 表象」, 「담배」, 「마음」, 「13行 人生」, 「罰」, 「思惟의 꽃」, 「새나라」, 「슬픔을 넘어서」 신석정,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푸른 寢室」, 「작은 짐승」, 「少年을 위한 牧歌」, 「슬픈 構圖」, 「五月이 돌아 오면」, 「靑山 白雲圖」, 「밤 (秋果 4題 抄)」 이상, 「鳥瞰圖-詩 第1號 詩 第2號 詩 第4號 詩 第5號 詩 第6號 詩 第7號 詩 第8號 詩 第9號 銃口 詩 第10號 나비 詩 第11號 詩 第12號 詩 第 13號 詩 第14號 詩 第15號」, 「明鏡」, 「거울」, 「無題」, 「紙碑」, 「地圖에 없는 地理」, 「破帖」, 「正式」, 「아침」, 「家庭」, 「易斷」, 「行路」, 「▷의 遊 戲一」, 「線에 관한 覺書 2」, 「線에 관한 覺書 6」 김광균, 「午後의 構圖」, 「해마라기의 感傷」, 「壁畫」, 「外人村」, 「街路樹」, 「瓦 斯燈」, 「雪夜」, 「秋日抒情」, 「장곡전정에 오는 눈」, 「눈 오는 밤의 詩」, 「都心地帶」, 「鄉愁」, 「忘憂里」, 「은수저」, 「대낮」, 「水鐵里」, 「幻燈」, 「데짱」, 「魯迅」, 「뽕씨」, 「영도다리」, 「思鄉圖」, 「언덕」 유치환, 「生命의 書 1章」, 「曠野에 와서」, 「首」, 「北方 秋色」, 「讀人不知」, 「待 人」, 「蜀葵 있는 마을」, 「古代 龍市圖」, 「植木祭」, 「深山」, 「깃발」, 「五月雨」, 「六年後」, 「靑山 流雲圖」, 「蜻蛉歌」, 「落葉」, 「산길」, 「最 前線」, 「感傷狙擊」, 「편지」</p>
---	------------------------------------------------------------------------------------------------------------------------------------------------------------------------------------------------------------------------------------------------------------------------------------------------------------------------------------------------------------------------------------------------------------------------------------------------------------------------------------------------------------------------------------------------------------------------------------------------------------------------------------------------------------------------------------------------------------------------------------------------------------------------------------------------------------------------------------------------------------------------------------------------------------------------------------------------------------------------------------------------------------------------------------------------------------------------------------------------------------------------------------------------------------------------------------------------------------------------------------------------------------------------------------------------------------------------------------------------------------------------------------------------------------------------------------------------------------------------------------------------------------------------------------------------------------------------------------------------------------------------------------------------------------------------------------------------------------------------------------------------------------------------------------------------------------------------------------------------------------------------------------------------------------------------------------------------------------------------------------------------------------------------------------------------------------------------------------

	<p>노천명, 「사슴」, 「幌馬車」, 「春分」, 「푸른 五月」, 「女人賦」, 「남사당」, 「길」, 「夜啼鳥」, 「귀뚜라미」</p> <p>서정주, 「花蛇」, 「문둥이」, 「대낮」, 「입맞춤」, 「水帶洞詩」, 「高乙那의 딸」, 「봄」, 「歸蜀道」, 「復活」, 「行進曲」, 「꽃」, 「桃花 桃花」, 「密語」, 「無題」, 「푸르른 날」, 「골목」, 「鶴」, 「국화 옆에서」, 「아지랑이」, 「新綠」, 「鞞韞詞-春香의 말 1」, 「다시 밝은 날에-春香의 말 2」, 「春香遺文-春香의 말 3」</p> <p>김중환, 「歸路」, 「살구꽃처럼」, 「故園의 詩」, 「그늘」, 「連峯霽雪」, 「航空哀歌(歸還抄)」, 「海港」, 「남은 우물이 있는 風景」, 「路傍」, 「山中」, 「新制作派展」, 「未亡人 R의 肖像」</p> <p>이한직, 「溫室」, 「風葬」, 「늑새가 불면」, 「羈旅 抄」, 「飛翔」, 「降下」, 「汎濫」, 「未來의 山上으로」, 「또다시 虛構의 봄이」</p> <p>박두진, 「雪岳賦」, 「墓地頌」, 「靑山道」, 「道峯」, 「해」, 「장미의 노래」</p> <p>박목월, 「나그네」, 「청노루」, 「簡易驛」, 「佛國寺」, 「桃花」, 「閏四月」, 「갑사당기」, 「고사리」, 「年輪」, 「산그늘」, 「樂浪公主」, 「終點에서」</p> <p>조지훈, 「古風衣裳」, 「僧舞」, 「鳳凰愁」, 「離別」, 「古調」, 「芭蕉雨」, 「古寺 1」, 「피리를 불면」, 「밤」, 「그리움」, 「玩花衫」, 「花體開顯」, 「불타는 밤거리에서」, 「抱擁」</p> <p>박남수, 「초롱불」, 「酒幕」, 「밤길」, 「距離」, 「寂境」, 「深夜」, 「마을」, 「鎭南浦」</p> <p>김경린, 「나부끼는 季節」, 「旋回하는 가을」, 「波長처럼」, 「너의 목소리는 木管樂器」, 「빛나는 光線이 올 것을」, 「國際列車는 打字機처럼」, 「化粧한 年代를 위하여」, 「腦細胞 속의 事實들」, 「太陽이 直角으로 떨어지는 서울」, 「흐르는 感性을 위하여」, 「紛失된 週末을 위하여」</p> <p>조향, 「소녀 (1)」, 「靑春의 TACT」, 「가을과 少女의 노래」, 「植物의 章 (抄)」, 「EPISODE」, 「바다의 層階」, 「1950年代의 斜面」, 「투명한 午後」, 「SARA DE ESPERA (抄)」, 「검은 DRAMA」, 「어느 날의 MENU」, 「왼편에서 나타난 灰色의 사나이」, 「어느 날의 地球의 밤」, 「秋風感別曲」, 「검은 神話」, 「綠色 椅子가 앉아 있는 베란다에서」, 「文明의 荒蕪地」</p> <p>박인환, 「列車」, 「最後의 會話」, 「永遠한 日曜日」, 「資本家에게」, 「回想的 溪谷」, 「밤의 노래」, 「壁」, 「書籍과 風景」, 「어느 날의 詩가 되지 않는 詩」, 「투명한 바라이에티」, 「검은 江」, 「舞蹈會」, 「不幸한 산송」</p> <p>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 「不毛의 에레지이」</p>
소설	<p>조향, 現代小說論</p> <p>김동인, 「감자」</p> <p>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p> <p>이상, 「날개」</p> <p>조향, 「九官鳥」</p>
Essay	<p>최현배, 한글만 쓰기로 하자</p> <p>한글학회, 標準語</p> <p>조의설, 現代思想의 歷史的 背景</p>

이병기, 時調論
이승녕, 造語論
백철, 韓國 現代文學의 特質
최재서, 文學의 目的·機能·效用
장우성, 東洋文化의 現代性
Syephen Spender, 모더니스트 運動에의 哀悼
박종홍, 實存主義와 現代哲學

[표 5] 『대학국어』(국제신보사출판국, 1962.3) 목차

현대편	주요한, 「비소리」
	김억, 「오다가다」, 「물레」
	오상순, 「亞細亞의 밤」
	박영희, 「幽靈의 나라」, 「月光으로 짠 病室」
	홍사용, 「나는 王이로소이다」
	이상화, 「나의 寢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정식,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招魂」
	한용운, 「임의 沈默」, 「나룻배와 行人」
	이병기, 「大聖庵」, 「소나기」
	김운식,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을 아실 이」
	김광섭, 「憧憬」, 「思惟의 꽃」
	신석정, 「나의 꿈을 엿보시겠읍니까」, 「靑山 白雲圖」
	이상, 「鳥瞰圖-詩 第1號」, 「거울」
	김광균, 「瓦斯燈」, 「은수저」
	유치환, 「生命의 1章」, 「首」
	노천명, 「幌馬車」, 「남사당」
	서정주, 「花蛇」, 「歸蜀道」
	김중환, 「살구꽃처럼」, 「連峰霽雪」
	이한직, 「風葬」, 「늪새가 불면」
	박두진, 「雪岳賦」, 「墓地頌」
	박목월, 「나그네」, 「閏四月」, 「갑사댕기」
	조지훈, 「僧舞」, 「芭蕉雨」
	박남수, 「酒幕」, 「마을」
	이호우, 「무덤」
	김경린, 「國際列車는 打字機처럼」, 「흐르는 感性을 위하여」
	조향, 「바다의 層階」, 「검은 DRAMA」
	박인환, 「回想的 긴 溪谷」, 「검은 江」
	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 「不毛의 에레지이」
	이인직, 「鬼의 聲」
	이광수, 「無情」
김동인, 「감자」	

	<p>이효석, 「수탉」 이상, 「逢別記」 김동리, 「歸還壯丁」 김성한, 「極限」 김기석, 民主主義와 自由 백철, 韓國 現代文學의 特質 김사엽, 俗談의 效用 현진건, 歷史小說 問題 조향, 現代詩論 (抄) 이병도, 李栗谷 先生과 그 思想 최재서, 네 개의 文學思潮 T.S.엘리올 · 양주동 역, 傳統과 個人的 才能 조봉제, 人生과 演劇</p>
고전편	<p>傳 古朝鮮 麗玉, 「筵篋引」 瑠璃王, 「黃鳥歌」 薯童, 「薯童謠」 [고시조] 황진이, 이조년, 서익(徐益), 정철 「靑山別曲」 「四時風景歌」 「秋風感別曲」 「興夫傳 (抄)」 박지원, 「虎叱」 「장끼傳」 「春香傳」 혜경궁홍씨, 「恨中錄 (抄)」 허균, 「洪吉童傳 (抄)」 박두세, 「要路院夜話記」 유몽인, 「어우야담 (선)」 김만중, 「九雲夢」</p>
어문편	<p>최현배, 한글만 쓰기로 하자 김형규, 上古時代의 言語 標準語 이송녕, 造語論 국어와 문법 1. 세설 2. 국어문법 3. 국어의 변천 4. 국어의 문자 5. 국어정책 6. 국어의 특질</p>

[표 6] 『개정 대학국어』(현대출판사, 1966.3) 목차

시	조향, 現代詩論 (抄) 최남선, 「海에게서 少年에게」 주요한, 「불놀이」, 「비 소리」 김억, 「봄바람」, 「오다가다」 오상순, 「亞細亞의 밤」 박영희, 「어둠 너머로」, 「幽靈의 나라」 홍사용, 「나는 王이로소이다」, 「흐르는 물을 붙들고서」 이상화, 「나의 寢室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정식, 「招魂」, 「길」 한용운, 「임의 沈默」, 「繡의 秘密」 이병기, 「大聖庵」, 「水仙花」 김윤식, 「모란이 피기까지는」, 「春香」 김광섭, 「思惟의 꽃」, 「罰」 신석정, 「靑山 白雲圖」,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이상, 「詩 第2號」, 「거울」 김광균, 「瓦斯燈」, 「午後의 構圖」 유지환, 「生命의 書 1章」, 「曠野에 와서」 노천명, 「幌馬車」, 「남사당」 서정주, 「花蛇」, 「復活」 김종한, 「살구꽃처럼」, 「낮은 우물이 있는 風景」 이한직, 「溫室」, 「風葬」 박두진, 「雪岳賦」, 「해」 박목월, 「나그네」, 「桃花」 조지훈, 「僧舞」, 「古調」 박남수, 「밤길」, 「酒幕」 이호우, 「무덤」 김경린, 「太陽이 直角으로 떨어지는 서울」, 「흐르는 感性을 위하여」 조향, 「1950年代의 斜面」, 「검은 DRAMA」 박인환, 「列車」, 「回想的 溪谷」 T. S. Eliot · 조향 역, 「붉은 다테리」, 「속이 빈 사람들」 E. E. Cummings · 조향 역, 「노래」, 「사라지다」 Jacques Prévert · 조향 역, 「아침 식사」 합작시(김경린, 이봉래, 조향), 「不毛의 에레지이」
소설	조향, 現代小說論 최찬식, 「秋月色」 김동인, 「배따라기」 현진건, 「운수 좋은 날」 이효석, 「모밀꽃 필 무렵」

	<p>이상, 「날개」 조항, 「九官鳥」 김성한, 「5분간」 이광수, 「無明」 염상섭, 「두 破産」 김동리, 「바위」 김영수, 「素服」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p>
희곡	<p>유치진, 戲曲論 抄 차범석, 「성난 機械」 존. M. 씩그·한태원 역, 「비오는 산골 <1幕>」</p>
Essay	<p>이항녕, 文學과 法律 이희승, 「딸깍발이」 이상, 「秋夕插話」 양주동, 「湄江頌」 하영노, 「報償의 眞理」 김유정, 「病魔와 싸우며」</p>
평론	<p>이승녕, 放送의 言語 示範性 박종홍, 韓國의 思想 이상백,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 손명현, 知性的 歷史 김기석, 民主主義와 自由 백철, 韓國 現代文學의 特質</p>
고전	<p>조운제, 古典文學과 現代文學 傳 古朝鮮 麗王, 「筮篋引」 瑠璃王, 「黃鳥歌」 月明師, 「祭亡妹歌」 「滿殿春別詞」 「遊山歌」 「秋風感別曲」 박지원·임헌도 역, 「兩班傳」 「愚夫歌」 [시조] 이준오, 이색, 맹사성, 황진이, 이이, 이정보, 정철, 박인로, 임제, 신 흠, 윤선도, 김수장, 김천택, 조명이, 송순, 조식, 이황, 정철, 안민영, 박효 관 의유당, 「意幽堂 關北遊覽 日記」 「春香傳」 박두세, 「要路院夜話記 (抄)」 「杜詩諺解」</p>

참고문헌

(1) 자료

- 김수경 엮음, 『조향전집』 1~2, 열음사, 1994.
대학국어교재편찬위원회 엮음, 『大學國語演習』, 태화인쇄소, 1977.3.
서정주 편저, 『現代朝鮮名詩選』, 온문사, 1950.2.
이하운, 『詩集』(조선문학전집 10),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4.
조섭제 選編, 『大學國語 現代國文學粹』, 서울: 행문사, 1948.12.
조섭제 撰, 『大學國文學 古典文學粹』, 부산: 자유문학사, 1950.2.
조향 편저, 『개정 대학국어』, 서울: 현대출판사, 1966.3.
조향 편저, 『大學國語 現代文學』, 부산: 자유장, 1958.4.
조향 편저, 『대학국어』, 부산: 국제신보사출판국, 1962.3.
조향 편저, 『現代國文學粹』, 부산: 자유장, 1952.11.
『가이거(Geiger)』 제1집, gammas, 1956.
『낭만파(浪漫派)』 2 - 4집, 낭만파사, 1946~1948.
『아시체(雅屍體)』 제1집, 초현실주의연구회, 1974.
『일요문학(日曜文學)』 제1집, 일요문학회, 1962.
『현대문학(現代文學)』 제1집, 현대문학연구회, 1954.

(2) 논저

- 강진호 외 여럿,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김규동, 『나는 시인이다』, 바이북스, 2011.
김동환, 「현대문학 정전 형성과정에서의 “대학교양국어”교재의 역할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2012.10, 527~556쪽.
김양희, 「해방기 조향 시 연구 - ‘낭만’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

- 6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19~152쪽.
- 노춘기, 「해방기 조향의 시적 지향 - 동인지 『낭만파』와 『죽순』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48집, 우리문학회, 2015, 261~288쪽.
- 동아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동아대학교 50년사』, 1998.
- 박민규, 「해방기 경남 지역의 시운동과 시 이념 - 중앙 시단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117~143쪽.
- _____, 「신시론과 후반기 동인의 모더니즘 시 이념 형성 과정과 그 성격」, 『어문학』 제124집, 한국어문학회, 2014, 307~339쪽.
- 박숙자, 「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근대문학회, 2012.4, 451~483쪽.
- 박용찬,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2011.
- _____, 「한국전쟁 직전 국어교재에 실린 문학텍스트의 구성담론과 국가주의 시선으로의 이동」, 『어문학』 119집, 한국어문학회, 2013.3, 223~253쪽.
- 박현수, 「조향 시론: 아방가르드와 원시주의의 활력」, 『우리말글』 36집, 우리말글학회, 2006, 233~262쪽.
- 송기한, 「후반기 동인과 전위의 의미」, 『한국시학연구』 제20호, 한국시학회, 2007, 63~85쪽.
- 이미순, 「조향의 시어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8집, 국어교육학회, 2011, 355~384쪽.
- 이대규, 「대학의 변화와 대학 교양 국어 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549~573쪽.
- 이순욱, 「한국전쟁기 전시독본의 형성 기반과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한국문학회, 2011.8, 423~452쪽.
- _____,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 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3, 189

- ~226쪽.
- _____, 『광복기 부산 지역 동인지 『소예군상(小藝群像)』, 『근대서지』 제5호, 소명출판, 2012.6, 400~465쪽
- _____, 『광복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1) - 현대시 제재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36집, 동남어문학회, 2013.11, 155~194쪽.
- _____, 『한국전쟁기 문학독본과 문학교육 - 한국전쟁기 독본 연구 2』, 『한국문학논총』 제66집, 한국문학회, 2014.4, 361~391쪽.
- _____, 『광복기 부산 지역 한글운동과 『한얼』』, 『우리문학연구』 제53집, 우리문학회, 2007, 409~433쪽
- 이중환, 『책, 시슬에서 풀리다』, 혜안, 2005.
- 정연희, 『대학교양교육에서 본 교양문학교육의 위상과 방향』, 『우리어문연구』 50집, 우리어문학회, 2014, 305~335쪽.
- 홍래성, 『조향의 초현실주의 시론의 발현과정과 특질에 대하여』, 『인문논총』 제71권 제3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4, 285~321쪽.

<Abstract>

Literary Reading Book of Jo Hyang and Education in University Literature in the 1950's

Lee, Soon-Wook*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reality of literary education at the Gyeongsangnamdo 慶尙南道 province in the 1950s. For it, I concentrate on the practical activities of Jo Hyang 趙鄉 who had led the society of the Right writers', especially three reading books edited by him, i.e., (1)Hyundaegungmunhaksu 現代國文學粹 (Essenc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948), (2)Hyundaegungmunhaksu 現代國文學粹 (Essenc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952, new edition of (1)), and (3)Hyundaemunhaksu 現代文學粹 (Essence of Modern Literature) (1958), all of them were made for literary education in academic classes.

I examine the editing and publishing processes and sociocultural context of each book, analyze the set-up of it, and deduce Jo's thoughts about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literary education. As the results, I can draw some meaningful facts. Firstly, while editing the first book (1), in spite of belonging to the Right, Jo tried to keep sense of balance in selecting materials. The book contains works of the Left writers', for instance, Lim Hwa 林和, Lee Tae-jun 李泰俊, and so on. It is so deferent from the dominant literary landscape of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time.

Secondly, however, while editing the new edition (2) of it, he turned his attitude and revealed his own view. It reflected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Thirdly, while editing the third edition (3), he concerned about Korean modern literary history, and especially reflected the trend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change of realism to psychologism.

Those results refer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reading books changed according not only to editors but also the change of cultural landscape of the times. I hope that this paper is helpful to draw the landscape of literary education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Key Words : Jo Hyang, literary reading book, Essence of Modern Literature, Essence of Modern Literature, literary landscape, literary education, Korean literary history, sociocultural context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확정 : 2017년 8월 21일

